

국민행복시대의 가족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Family Happines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National Happiness Period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본 고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적 질(Social Quality)'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한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상이한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다. 가족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족건강과 가정안정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한국가족의 행복을 분석하였다. '가족건강'으로 주관적 건강평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이용, 암 발생, 급성심근경색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 등을 논의하였고, '가정안정'으로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가족의 생활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가족의 역할 안정, 안정적 가족보호 등을 논의하였다. 평가결과 가족건강은 미흡이었고, 가정안정은 보통이었다. 특히, 미흡으로 평가된 정신건강, 암발생, 급성심근경색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가족보호를 위한 자살, 청소년 폭력, 청소년 가출, 부부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happiness)'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인지 행복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총량성장 위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행복 찾기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신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사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

어에서 '행복함'을 의미하는 'happy'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happ'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한다. 또한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이다. 혹자는 행복을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적 질(Social Quality)' 등과 동등하게 다루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복'을 최고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은 '행복'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강한 주관성으로 인한 수준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화하려는 의도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현 시대의 한국가족의 행복수준을 분석하여 논의하며, 가족행복 증진을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2.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용어의 개념화는 간단하지가 않다. 일부 학자들은 행복을 ‘삶의 질’과 혼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삶의 질이 높으면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삶의 질’ 특히 경제수준은 높지만 행복수준은 낮은 경우도 있다. 특히, 한국이 경제지수는 높은 데 행복지수는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은 ‘삶의 질’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없고,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개념화되어 행복지수가 측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유럽 재단(EFSQ)¹⁾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well-being)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사회적 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삶의 질 접근과는 달리 매일의 삶의 사회적 환경의 질을 측정한다.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사회적 질이 할

동할 수 있는 ‘social space(사회 공간)’은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인 사회경제적 보장(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응집력(social cohesion), 사회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에서와 이들 요인 간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동일한 것인가? 상이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이다. 먼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21개 행복결정요인 중 영향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족(결혼)생활 만족도’이었으며, ‘가족의 건강수준’도 높았다. 이 외에도 영향도가 5%대로 높은 지표는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원 관계 만족도’,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등 7개 지표였다.²⁾

그런데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개별가족원이 행복하지 않는데, 그 가족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을 파악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건강’이 44.4%로 가장 중요하였고, 다음은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이 41.7%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가족의 건강’을, 남성은 ‘가족의 안

1)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EFSQ)는 1997년 6월에 설립되었음. 유럽에서 경제나 화폐의 연합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에 대해 사회나 기타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질 개념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음.

2)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한국인 행복결정요인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

행복에 미치는 요인	영향도	가중치(%)
①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1.34	5.8
② 가족의 건강수준	69.60	5.7
③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9.60	5.7
④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8.73	5.6
⑤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7.20	5.5
⑥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6.42	5.4
⑦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12	5.4
⑧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62.05	5.0
⑨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1.20	5.0
⑩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60.68	4.9
⑪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58.32	4.7
⑫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58.32	4.7
⑬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57.67	4.7
⑭ 규칙적인 운동여부	56.80	4.6
⑮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55.48	4.5
⑯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02	4.4
⑰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4.02	4.4
⑱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50.40	4.1
⑲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47.88	3.9
⑳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42.12	3.4
㉑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31.50	2.6
계	-	100.0

자료: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재구성.

정'을 더 우선시하였다. 이 결과는 성공, 권력, 재산 등의 다른 요인들보다도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상 살펴본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본 고에서는 가족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파악된 '가족건강'과 '가족안정'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한다. '가족건강'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다. 소위 말하는 가족원이 모두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가족건강을 '주관적 건강 평가 및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미이용률', '암,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률'에 기초하여 가족행복의 핵심요소인 가족건강을 논의한다. 특히, 정신건강, 암,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롤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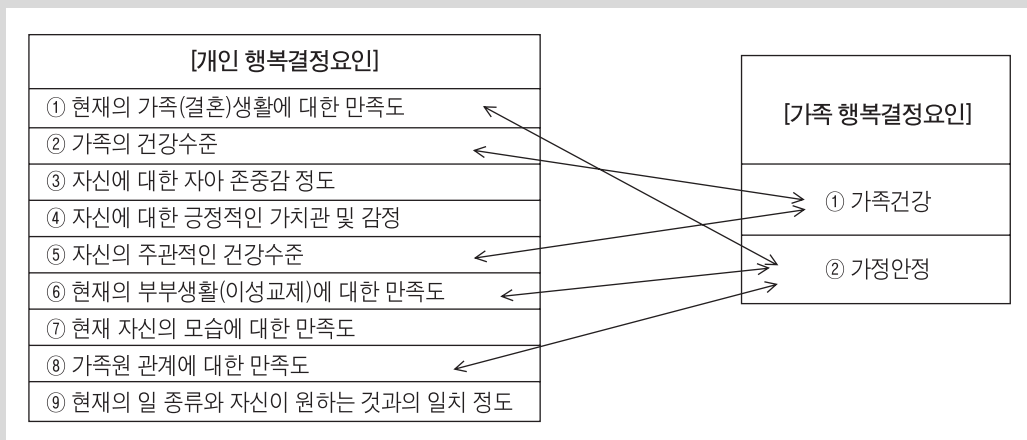
표 2. 가족행복의 중요 요건

(단위: %, 명)

요건	전체	남성	여성
가족의 건강	44.4	41.0	45.2
가정이 안정되어야 함	41.7	47.5	40.5
권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함	3.9	4.1	3.9
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함	3.5	1.3	4.0
가족원 모두 일에 성공하여야 함	3.0	3.1	3.0
자식이 사회에 나가 제 구실을 하여야 함	2.8	2.6	2.9
효성이 뛰어난 자식들이 있어야 함	0.4	0.2	0.5
기타	0.1	0.2	0.1
계(수)	100.0(10,049)	100.0(1,820)	100.0(8,2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 개인 행복결정요인과 가족 행복결정요인의 관계



주: 개인 행복결정요인 중 ③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⑦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⑨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는 개인적 요인이 매우 강하며, 가족 행복결정요인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됨.

증 발생률은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 및 사망률과 관련된 것이며, 동시에 한국가족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가족안정'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반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특징으로 가족원간의 배려와 개성 존중, 역할 및 책임 분담, 휴식과 오락,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고에서는 '가족안정'을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가족의

생활안정’, ‘가족관계의 안정(원만한 가족관계)’, ‘가족의 역할안정’, ‘가족의 안정적 보호’로 개념화하여 논의한다.

한국가족의 주요 행복결정요인을 가족건강과 가족안정 측면에서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3. 한국가족의 행복수준은?

본 고에서 제시한 가족행복의 조건에 의하여 한국가족의 행복수준을 관련 핵심지표에 의하여 거시적으로 살펴본다.

1) 가족건강

[주관적 건강평가 및 정신건강]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평가’는 남성 40.0%, 여성 32.1%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8.2%이었고, 최근 1년 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인 ‘우울증상 경험률’은 12.8%이었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은 남성보다 각각 6.3%pt, 9.3%pt 높았다.

특히, 여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이 높았고, 남성은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우울증상 경험률은 소득과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의료서비스 미이용률]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치과제외) 진료가 필요한데도 가지 못한 비율인 ‘병의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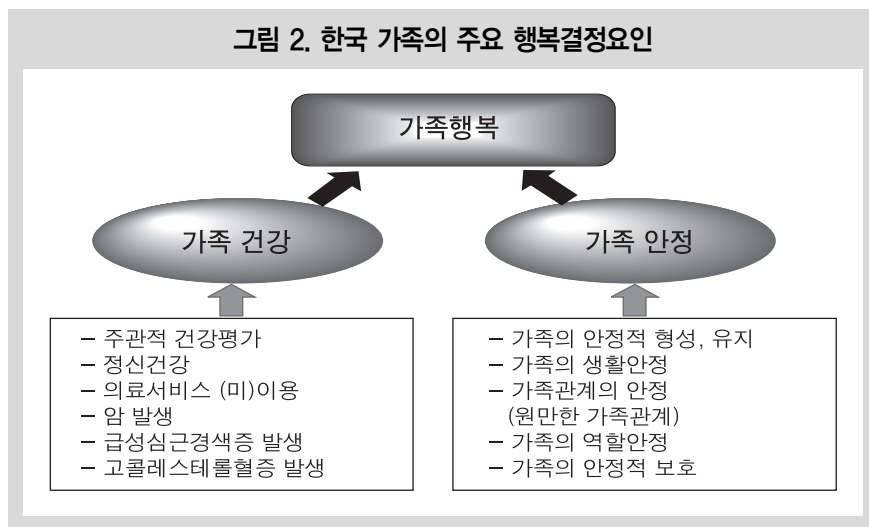


표 3.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 평가 및 정신건강 상태: 2010년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주관적 건강 평가: (매우) 좋음	36.0	40.0	32.1
스트레스 인지율	28.2	25.1	31.4
우울증상 경험률	12.8	8.1	17.4

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료율'은 '10년 20.3%이었다. 여성(24.2%)이 남성(16.3%)보다 7.9%pt 높아 남녀 간의 미치료 격차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났는데, 미치료율은 고소득층이 16.5%로 저소득층 22.6%보다 크게 낮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하였다.

[암,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위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높았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위암과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 서구형 식습관 및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률(10만명당)은 '99년 8.5명에서 '09년 24.9명으로 증가하였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에 2.3명에서 18.2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99년 24.5명에서 '09년 43.8명으로 증가하였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93.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섭취,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서구성 질환으로 한국인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급성심근

표 4. 한국인의 병원 미치료율: 2010년

(단위: %)

구분	계	남성	여성
전체	20.3	16.3	24.2
소득수준	상	15.3	17.8
	하	16.6	28.4

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 중상과 중하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표 5. 주요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 1999, 2009년

(단위: 10만 명당 인구)

구분	남성					여성				
	위	간	대장	전립선	갑상선	위	간	대장	유방	갑상선
1999년	68.4	48.5	27.0	8.5	2.3	28.3	12.6	17.1	24.5	11.9
2009년	66.2	38.9	50.2	24.9	18.2	27.3	10.7	26.9	43.8	93.5

자료: 중앙암등록본부(2011), 2009년 국가암등록통계.

경색증 유병률(10만 명당)은 2000년 110명에서 2010년 163명으로 증가하였고,³⁾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은 1998년 10.0%에서 2010년 13.5%로 증가하였다.⁴⁾

2) 가족안정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가족이 원만하게 형성되고, 형성된 가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가족안정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가족의 안정적 형성으로서의 결

혼가치관과 실제, 가족의 안정적 유지로서의 이혼가치관과 실제에 의하여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의하여 결혼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부정적 가치관 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함’과 같이 결혼을 필수로 보는 견해는 남성의 경우 높아졌고, 여성의 경우는 미미하게나마 낮아졌다. 특히, 미혼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결혼’을 덜 매력

표 6.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미혼남성	2005년 ¹⁾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12년 ²⁾	25.8	41.7	26.5	3.4	2.6	100.0(1,855)
미혼여성	2005년 ¹⁾	12.9	36.3	44.9	3.7	2.2	100.0(1,205)
	2012년 ²⁾	13.3	43.4	37.2	4.4	1.7	100.0(1,615)

자료: 1) 이삼식 외(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4) 보건복지부(각 연도), 2010 국민건강통계.

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가족의 안정적 형성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비혼 및 만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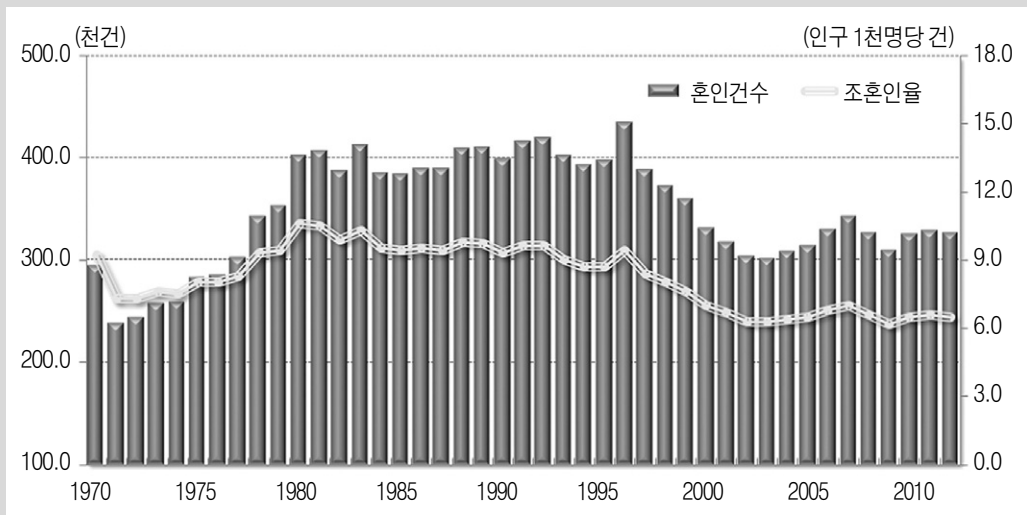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전년대비 남자 0.2세, 여자 0.3세 상승하였고, 2012년 혼인건수는 32만 7천 1백건으로 전년대비 2천건, 0.6% 감소하였으며,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2012년 6.5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하였다.⁵⁾ 이를 통해 결혼가치관이 실제 행위(behavior)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이혼가치관과 실제에 의하여 가족의 안정적 유지를 판단한다. 물론 이혼 자체를 문

제로 볼 수 없으며, 이혼이 개인이나 가족의 불행을 종식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혼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혼은 가족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함 또는 하는 편이 좋음’의 비율은 2003년 18.6%, 2006년 13.8%, 2009년 20.5%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26.9%로 높았다. 기혼부부의 이혼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점차 증가하고

그림 3. 혼인건수 및 초혼인율 추이



자료: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5)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표 7.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2003년 ¹⁾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년 ²⁾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2009년 ³⁾	2.0	18.5	31.8	39.1	8.4	0.2	100.0(9,796)
2012년 ⁴⁾	2.5	24.4	34.0	33.6	7.3	0.2	100.0(10,064)

주: 2003~2009년 자료는 기혼여성만을 조사한 통계이며, 2012년 자료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모두 조사한 통계임.
 자료: 1)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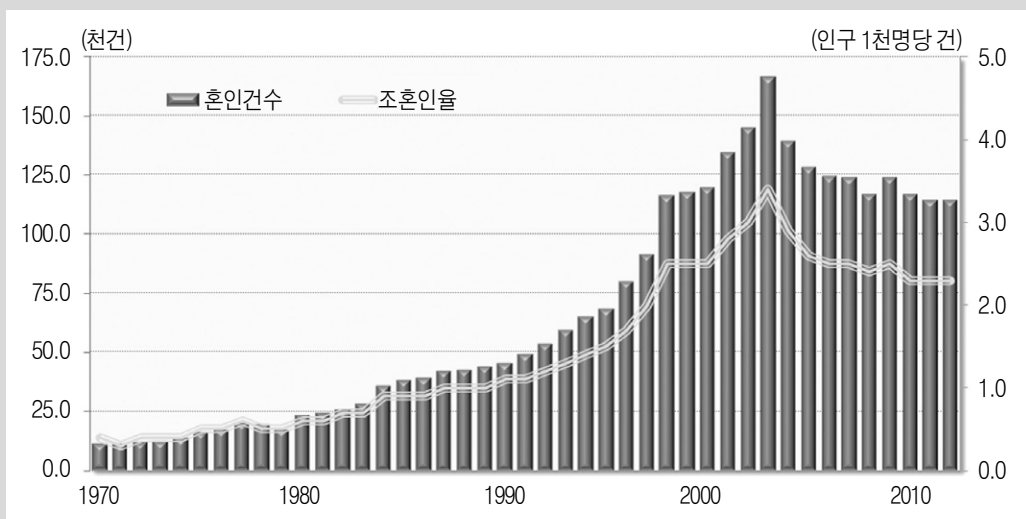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은 이혼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으나, 1970~90년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실제 이혼건수도 급증

하였다. 2012년 이혼은 11만 4천 3백건, 조이혼율(연앙인구 1천명당 1년간 발생한 이혼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자료: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즉, 1990년 이후 이혼인구 중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은 약 5배 증가하였다.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안정은 가족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본 고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에 의하여 가족의 생활안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경제적 안정과 관련하여 소득·소비·저축과 재산·부채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적 자립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분석하였다.

전국의 약 15,000가구를 조사한 2012년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317만

3천원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비는 250만 7천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저축은 66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매월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38.3%에 이르고 있음은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가구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부 가구는 불안정한 생활상태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산 및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이 부채보다 약 8배 많았으며, 부채가 없는 가구가 61.7%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가구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16.7%가 있음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경제

표 8.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단위: %)

구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년	39.5	29.1	18.2	7.9	5.2
2011년	26.9	19.0	15.2	14.2	24.8
2012년	24.7	18.9	15.5	14.6	26.4

주: 1) 미상이 포함된 비율로 전체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표 9. 한국가구의 소득·소비·저축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 이상	없음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15.9	18.2	19.4	15.5	11.2	19.8	-	100.0(14,846)	317.3
가구소비	17.8	25.2	21.9	16.7	9.3	9.1	-	100.0(14,840)	250.7
가구저축	34.9	17.1	5.7	2.1	2.0		38.3	100.0(14,856)	6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10. 한국가구의 재산·부채 현황

(단위: %, 가구, 십만원)

구분	없음	5,000만원 미만	5000~1억 미만	1억~1억 5천 미만	1억5천~2억 미만	2억 이상	계(수)	평균
재산	1.2	27.7	14.5	12.4	9.6	34.7	100.0(14,743)	2,215.3
부채	61.7	21.6	8.2	4.2	0.9	3.4	100.0(14,845)	276.1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구도 다소 있을 수 있다.

한국가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적 자립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혀 또는 별로) 자립하지 못하는 비율이 22.2%이었고, (약간 또는 상당히) 자립하고 있는 비율이 52.0%이었음은 위에서 보여준 소득·소비·저축과 재산·부채의 현황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많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일부 가족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 있고, 이는 가족행복이 낮은 가족이 다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 생활안정의 두 번째 지표로 주거안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행복의 결정적 요소로서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은 '95년 86.0%에서 '10년 114.2%로 크게 증가하였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 비율은 '95년 53.3%, '10년 54.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는 달리 월세거주 비율 역시 같은 기간에 11.9%에서 20.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세거주 비율은 '95년 29.7%에서 '10년 21.7%로 지속적인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자가거주 비율을 소득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자가거주 비율은 69.5%인 반면, 저소득층은 46.9%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보증부월세와 월세의 비율은 각각 25.8%, 4.1%로 고소득층에 비해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20.2%pt, 월세의 비율은 3.8%pt 높았다.

표 11. 한국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자립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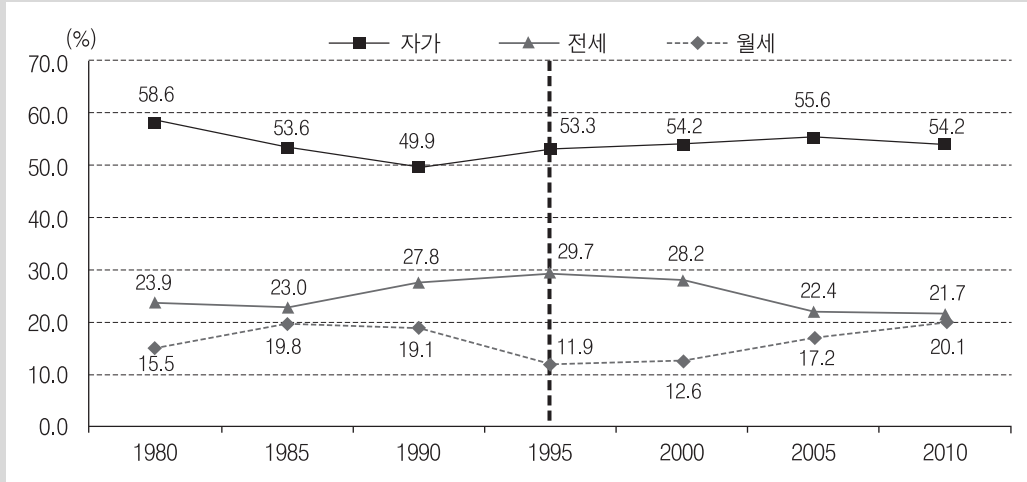
(단위: %, 명)

전혀 자립하지 못함	별로 자립하지 못함	보통	약간 자립하고 있음	상당히 자립하고 있음	모르겠음	계(수)
7.0	15.2	25.5	19.4	32.6	0.3	100.0(14,9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 국토해양부(각 연도). 국토해양통계연보.

그림 5.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 1980~2010년



주: 무상 및 사글세는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 1980~1990년에는 월세에 사글세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12. 소득계층별 주택 점유형태: 2010년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저소득층	46.9	16.8	25.8	4.1	2.8	3.7	100.0
중소득층	54.0	25.1	17.1	1.0	0.6	2.3	100.0
고소득층	69.5	23.0	5.6	0.3	0.2	1.4	100.0

주: 소득계층은 조사결과의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구분
 자료: 국토해양부(2011), 2010년 주거실태조사.

다행스럽게도 최저주거기준⁷⁾ 미달가구는 가구 대비 '06년 16.6%에서 '10년 10.6%로 '06년 268만 가구에서 '10년 184만 가구로 총 6.0%pt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최저기준에 미달

7)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됨. ① 시설기준은 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임시부역, 전용수세 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②와 ③의 침실 및 면적 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구체적 기준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참조); ④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i)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 ii)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iii)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iv)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v)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하는 주거상태에 있는 가구 10.6%는 가족의 주거안정에 위협적이며, 가족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 의미하는 것이고, 복지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사료된다.

[가족관계의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은 가족원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 안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남편이 결혼생활에서 만족하는 비율은 70.9%이었고, 부인이 만족하는 비율은 59.8%로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만족하는 비율은 69.6%이었고, 불만족 비율은 3.6%에 불과하였으며, 아내가 만족하는 비율은 59.5%이었고, 불만족 비율은 6.0%이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불만족도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이 남편보다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만족도를 측정하는 여러 문항 중에서 우선 자녀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만족률은 67.1%이었고, 자녀와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44.3%,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성적, 취업 등)에 대한 만족률은 58.1%,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률은 67.2%

표 1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변화 추이: 2006~2010년

(단위: 만 가구)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총가구수	1,616	1,667	1,734
미달가구 수(비율)	268 (16.6%)	212 (12.7%)	184 (10.6%)

주: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5월 27일 개정된 신규기준을 적용한 것임(최저주거기준 정의는 각주 참조).
자료: 국토해양부(2011), 2010년 주거실태조사.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¹⁾	실(방) 구성 ²⁾	총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 1	2 DK	36
4	부부+자녀 2	3 DK	43
5	부부+자녀 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 2	4 DK	55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보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14. 15~64세 기혼부부의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	0.1	1.8	27.2	53.1	17.8	100.0(1,489)
	아내	0.5	5.2	34.5	46.3	13.5	100.0(7,144)
부부관계 만족도	남편	0.0	3.6	26.8	51.2	18.4	100.0(1,489)
	아내	0.5	5.5	34.5	46.7	12.8	100.0(7,1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었다. 이와 같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일반적 만족 수준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사회의 경쟁적 풍조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고, 학교생활과 기타 학습활동이 자녀의 일상 활동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되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관계 만족도 관련 15개 항목 중에서 만족률이 70%대인 항목은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와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의 2개 항목이었고, 60%대인 항목은 10개 항목이었으며, 50%대는 2개 항목이었다. 반면

에 40%대의 만족률을 보인 항목은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47.5%) 뿐이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에서 평균 5~10% 정도는 불만족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의 역할 안정]

개별가족원이 가족 내에서의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가족행복의 한 요소이다. 본 고에서는 가사활동 분담, 배우자·부/모·며느리/사위로서의 만족도에 의하여 가족의 역할 안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가사활동 분담을 보면, 평일, 토요일, 일

표 15. 15~64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자녀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자녀와의 대화정도	0.6	4.6	27.7	52.9	14.2	100.0(9,347)
자녀와의 문화생활	1.6	16.7	37.2	34.9	9.4	100.0(9,344)
자녀들의 기대충족 정도(성적, 취업 등)	0.7	6.4	34.8	47.3	10.8	100.0(9,343)
자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0.6	3.2	29.0	55.4	11.8	100.0(9,3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16. 15~64세 기혼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0.6	5.9	34.4	50.8	8.3	100.0(10,002)
•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0.5	4.8	27.1	57.4	10.2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0.3	4.7	29.8	54.2	11.0	100.0(10,002)
•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서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0.7	8.6	35.2	44.8	10.7	100.0(10,002)
•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0.5	4.6	23.1	58.6	13.2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1.1	16.0	35.4	37.2	10.3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0.3	4.2	27.2	56.4	11.9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0.4	4.3	29.1	55.1	11.1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0.6	3.7	26.4	55.5	13.8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0.5	4.9	28.4	54.5	11.7	100.0(10,002)
•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0.6	4.4	25.4	56.9	12.7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0.4	3.3	26.9	57.6	11.8	100.0(10,002)
•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0.5	2.9	26.3	58.4	11.9	100.0(10,002)
•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0.4	4.0	27.4	57.4	10.8	100.0(10,002)
•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0.5	3.6	26.2	59.2	10.5	100.0(10,0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요일 관계없이 부인이 대부분(70% 이상)을 수행하고 있었고, 남편은 평일 15.8%, 토요일 22.3%, 일요일 24.2%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른 가족 또는 도우미는 약 3~4%의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사활동의 분담비율에 대한 주장은 남성과 여성이 다소 견해 차이를 보였으나 주로 부인이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여성의 가족 내 과중한 역할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역할의 불안정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배우자로서 부인에 대한 만족률은 72.7%이었고, 부인의 배우자로서 남편에 만족률은 59.3%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는 높았으나 남편과 부인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인식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 만족률은 80.5%이었고, 아내가 인식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 만족률은 64.3%이었다. 따라서 부(父) 또는 모(母)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률은 높지만 이 또한 남편과 부인이 인식하는 만족도 격차는 매우 컸다. 남편이 인식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만족률은 70.9%이었고, 아내가 인식하는 사위로서의 남편 만족률은 57.0%이었다. 따라서 만족률은 높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인식하는 며느리 또는 사위로서의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표 17. 15~64세 기혼가구의 요일별 가사활동의 분담 방법

(단위: %, 명)

구분	(분석 대상수)	평일			토요일			일요일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부인	남편	가족/도우미
전체	(8,316)	79.8	15.8	4.4	74.1	22.3	3.5	72.5	24.2	3.3
기혼남성	(1,261)	70.0	26.1	3.9	66.5	30.2	3.3	66.0	30.9	3.1
기혼여성	(7,056)	81.6	14.0	4.5	75.5	20.9	3.5	73.6	23.0	3.4
- 기혼 취업여성	(3,301)	75.3	18.0	6.7	70.5	24.6	4.9	69.1	26.4	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18. 15~64세 기혼부부의 배우자, 부/모, 며느리/사위로서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배우자 만족도	남편	0.0	2.3	25.0	
	아내	0.8	6.3	33.5	46.1	13.2	100.0(7,143)
어머니/아버지로의 배우자 만족도	남편	0.1	2.7	16.7	58.9	21.6	100.0(1,376)
	아내	0.9	6.3	28.6	45.5	18.8	100.0(6,744)
며느리/사위 배우자 만족도	남편	0.3	4.1	24.7	49.6	21.3	100.0(922)
	아내	1.6	8.9	32.5	39.5	17.5	100.0(5,4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안정적 가족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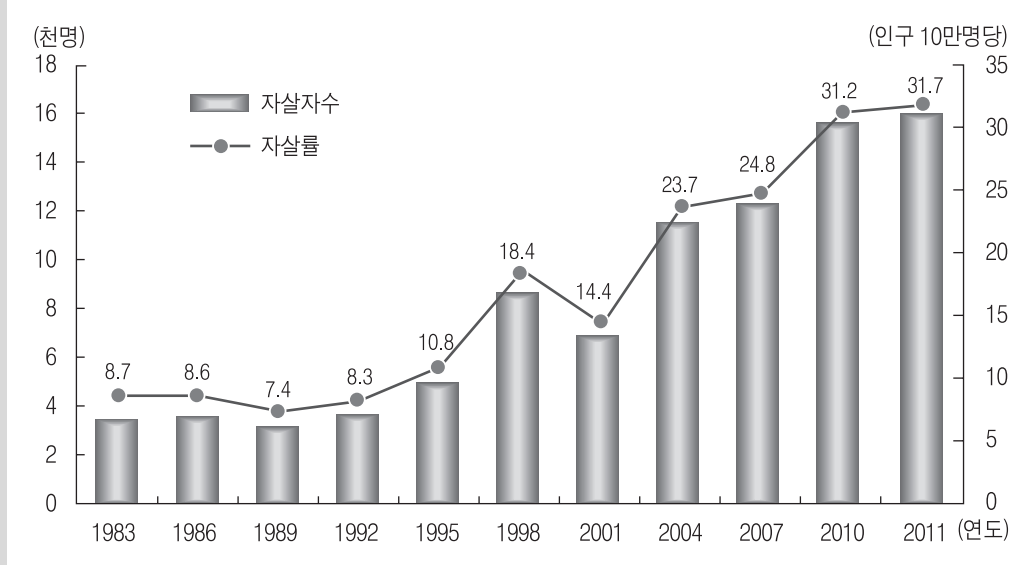
개별가족원이 잘 보호되어야 만이 가족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가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보호에 문제가 발생되면 가족보호가 원만치 않은 것이며, 이는 가족안정에 위협적이 되고, 궁극적으로 가족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자살, 중·고등학생의 폭력 피해경험, 청소년의 가출경험, 부부 폭력 등에 의하여 안정적 가족보호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살은 다른 가족원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불행과

충격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자살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족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우려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사망원인으로서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983년 8.7%에서 2011년 31.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사망원인에서 자살의 순위는 2011년 4위였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40대와 50대의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었다. 10~20대는 미혼자의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자살이 부모에게 주는 충

그림 6. 자살자 및 자살률 추이: 1983~2011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격은 무엇으로도 위안이 될 수 없을 것이며, 40~50대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의 위치를 갖는 연령계층으로 남은 가족에게 주는 충격은 대단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자가 있는

가족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평생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족보호의 두 번째 지표로서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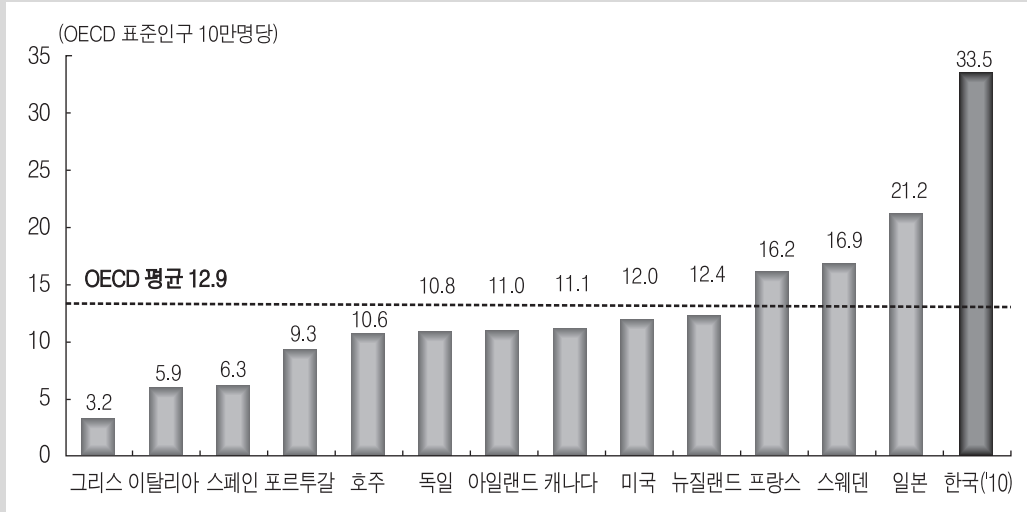
표 19. 연령별 2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11년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연령	1위			2위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사망원인	구성비	사망률
1~9세	암	17.8	2.6	운수 사고	14.2	2.1
10~19세	자살	26.5	5.5	운수 사고	22.6	4.7
20~29세	자살	47.2	24.3	운수 사고	15.3	7.9
30~39세	자살	36.7	30.5	암	18.7	15.7
40~49세	암	28.1	52.7	자살	18.1	34.0
50~59세	암	37.6	153.5	자살	10.1	41.2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그림 7. OECD 국가 자살률 비교



주: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OECD(2012) OECD Health Data 2012: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3 Countries

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2012년 중 · 고등학생이 최근 1년간 폭력(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 피해를 당한 경험률은 5.6%이었다. 이는 2010년 7.1%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폭력 피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다’ 51.8%, ‘성격 때문에’ 12.4% 등이었고, 폭력유형(중복응답)은 ‘육설 · 폭언’ 56.2%, ‘집단따돌림’ 38.2%, ‘돈/금품갈취’ 29.6%, ‘구타’ 28.1% 등이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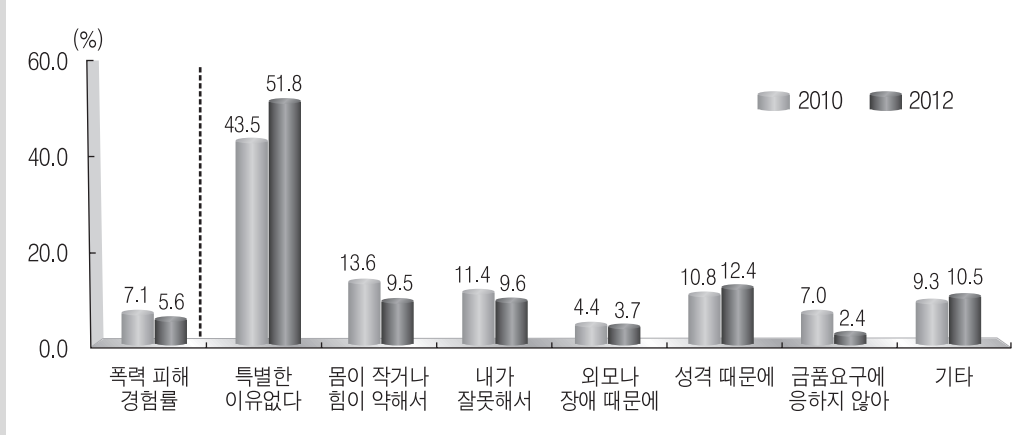
다음은 청소년 가출에 대한 것으로, 2012년 현재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 · 고등학생은 12.2%이었다. 가출의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61.3%,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2.8%, ‘가출에 대한 호기심’ 5.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지난 1년간 1회 이상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1%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보호의 주요 지표인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다. 한국사회에서 부부간의 폭력은 매우 빈번하며, 그 유형도 많다. 특히,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며, 다음은 ‘방임’이다.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로 폭력의 개념과 조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결코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한집 건너 한집에서 부부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중한 신체적

8)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그림 8. 청소년(중고등학생) 폭력피해 경험 및 이유



주: 1)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의 '욕설/협박', '폭행', '돈/물건 갈취', '집단 따돌림(양따)' 등
 2)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각 연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표 20. 청소년(중·고등학생) 가출 경험 및 이유: 2012년 (단위: %)

구분	비율
가출 경험률	12.2
가출원인	100.0
-가출에 대한 호기심	5.2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61.3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	1.3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4.6
-공부에 대한 부담감	3.9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로	2.0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2.8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1.2
-기타(무응답 포함)	7.8

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지 못하며, 이들 가족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4. 결론 및 정책과제

가족건강과 가정안정에 의하여 한국가족의 행복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행복결정요인의 평가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한 결과, 가족건강은 미흡, 가정안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족건강 중 '주관적 건강평

폭력이 2010년 3.3%이었고, 성학대 10.4%이었다. 즉, 상당수 폭력피해 가족원이 보호되고 있

가'와 '의료서비스 이용'은 보통이고, '정신건강', '암 발생',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

표 21.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 분	부부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2010년	53.8	42.8	16.3	3.3	16.7	10.1	30.5	10.4	(2,423)
2007년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6,561)
2004년	44.6	42.1	15.2	4.8	15.7	-	-	7.1	(5,916)

주: 2007년과 2010년 조사에서의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4년 조사에서의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임.

자료: 1) 김재엽 외(2010).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여성부(2005).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물혈증 발생'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가정안정 중 '가족관계의 안정'은 우수였고,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가족의 생활안정', '가족의 역할 안정'은 보통이었으며, '안정적 가족 보호'는 미흡이었다. 이와 같이 평가된 구체적인 근거는 <표 22>에 제시된다.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4대 국정목표, 23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가족행복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국정목표 2(맞춤형 고용복지)와 국정목표 4(안전과 통합의 사회)에 제시되어 있다. 본 고의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가족행복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근무환경 개선과 여가레저의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여

성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계층에 통합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암,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예방정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신정부의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셋째, 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못하는 미치료를 '제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특히 여성 저소득층의 미치료율이 높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원의 보호는 국민의 보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살, 청소년 폭력(학교폭력), 부부폭력, 청소년 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지면의 한계로 본 고의 논의에서

표 22. 가족행복의 거시적 평가

가족행복 요인	평가	평가근거
가족건강	미흡	
주관적 건강평가	보통	- 좋음의 비율이 36.0%(여성 32.1%)로 높지 않음
정신건강	미흡	- 스트레스 인지율 28.2%(여성 31.4%), 우울증상 경험률 12.8%(여성 17.4%)로 여성의 정신건강이 특히 좋지 않음 -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은 여성의 가구소득에 따라 반비례하고, 남성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고소득층에서 높음
의료서비스 이용	보통	- 진료가 필요함에도 미치료율이 20.3%(여성 24.2%) - 저소득층의 미치료율은 22.6%(여성 28.4%)로 높음
암 발생	미흡	- 암발생률이 매우 높음. 남성은 위암, 대장암이;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특히 높음 - 남성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이 증가추세이고, 위암은 소폭 저하, 간암은 큰폭 저하 -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이 증가추세, 위암과 간암이 소폭 저하
급성심근경색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발생	미흡	- 급성심근경색증 유병률 증가추세(10만명당 2000년 110명→2010년 163명)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증가추세(1998년 10.0%→2010년 13.5%)
가정안정	보통	
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보통	-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긍정적 가치관이 높은 비율을 보임(미혼남성 2005년 71.4%→2012년 67.5%; 미혼여성 2005년 49.2%→2012년 56.7%) - 초혼연령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혼인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가족형성의 불안정성 존재 - 이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증대(2003년 18.8%→2012년 26.9%)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 가치관이 높음(2003년 50.6%→2012년 40.9%) - 이혼율은 정체를 보이나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족불안정 초래
가족의 생활안정	보통	- 전체적으로는 소득·소비·저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전체 가구의 38.3%는 저축을 못하고 있어 희망 부재 - 전체적으로는 재산·부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5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가 16.7%나 됨. - 주관적 경제적 자립률이 52.0%로 높으나, 미자립률도 22.2%나 됨 - 자가거주비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1995년 53.3%→2010년 54.2%), 소득계층에 따라 자가비율의 격차가 심함(저소득층 46.9%, 고소득층 69.5%)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율이 개선되고 있음(2006년 16.6%→2010년 10.6%)
가족관계의 안정	우수	- 결혼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음(남편 70.9%, 부인 59.8%) - 부부관계 만족도가 매우 높음(남편 69.6%, 부인 59.5%) - 자녀와의 대화 만족도가 매우 높음(67.1%) - 자녀와의 문화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음(44.3%) - 자녀의 기대충족 만족도가 높음(58.1%) - 자녀관계 전반적 만족도가 매우 높음(67.2%) - 가족관계 15개 항목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최고 71.8%, 최저 47.5%)

〈표 22〉 계속

가족행복 요인	평가	평가근거
가족의 역할 안정	보통	- 가사활동에서 부인의 역할이 과중, 남편의 가사활동 부진 -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도 부인역할이 과중(평일: 부인 75.3%, 남편 18.0% 가사활동 수행) - 배우자 역할의 만족도 매우 높음(남편 72.7%, 아내 59.3%) - 어머니/아버지 역할의 만족도 매우 높음(남편 80.5%, 아내 64.3%) - 며느리/사위 역할의 만족도 매우 높음(남편 70.9%, 아내 57.0%)
안정적 가족보호	미흡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현저히 증가(1983년 8.7%→2011년 31.7%) -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청소년 폭력피해경험률 다소 감소(2010년 7.1%→2012년 5.6%) - 청소년 가출경험률 12.2%이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61.3%) - 부부폭력 발생이 한집건너 한집(2010년 53.8%)

제외된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의 가족보호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만혼 및 비혼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형 성인 결혼을 안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혼율을 저하시키고 이혼가족의 안정을 위하여 이혼의 원인과 이혼후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의 외로움, 자살, 빈곤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율 ‘제로’를 위한 장단기 주거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에서 최저기준이 미달하는 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자가거주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욕구에 맞는 주택 규모와 필요 지역을 엄선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부건복지